

3/5/17

설교 제목: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욥기 2:1-10

- (욥 2:1)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절관주** 욥 1:6
- (욥 2:2)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녔나이다 **절관주** 욥 1:7
- (욥 2:3)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 (욥 2:4)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족으로 가족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울지라
- (욥 2:5)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욱하지 않겠나이까
- (욥 2:6)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 (욥 2:7)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 (욥 2:8)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절관주** 렘 6:26, 겔 27:30
- (욥 2:9)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욱하고 죽으라 **절관주** 욥 21:15
- (욥 2:10)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사탄의 1 차 천상 회의에서 사탄의 참소로 어처구니 없이 재앙을 받아야만 했던 욥이었습니다.

(욥 1:9)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 1:10)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욥 1:11)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욥에 대해 하나님께 이와 같이 참소하고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해 보도록 허락하심으로써 욥은 하루 아침에 10 명의 자녀들과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이 이같은 고난을 겪어야 했던 것은 순전히 사탄의 참소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실족시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해 끝없이 참소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 아무런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한 믿음이 되기보다는 세상의 보상을 기대하는 기복 신앙이 되도록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믿는 자들을 향한 계략이고 사명입니다.

사탄의 이런 짓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개개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딤후 2: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란 일종의 보증을 제시함으로써 양자 간을 중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자신이 친히 보증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십니다.

욥은 어처구니 없게도 하루 아침에 10 명의 자녀들과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잃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하나님이 부어 주신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는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을 드렸고 하나님을 예배했으며 찬송했습니다.

(욥 1:21)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 1:22)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해서 제 1 라운드에서 욥은 믿음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고 사탄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제 2 라운드입니다.

얼마 후 2 차 천상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시험을 이겨낸 욥을 너무나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지난 번 일을 상기시키고 욥을 또 칭찬하십니다.

(욥 2:1)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욥 2:2)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녔 왔나이다

(욥 2:3)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저는 이 귀절을 보면서 세상에 얼마나 온전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까지 좋아 칭찬하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욥이 훌륭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원래 모두 욥과 같이 행동해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욥으로 인해 무척 기뻐셨기에 사탄에게 욥의 한결같은 신앙과 인격을 또 한번 극찬하십니다.

“보아라, 네가 나를 부추겨서 그를 시험해 보았지만 나의 사랑하는 욥이 어디 흔들리더냐? 너도 봤다시피 욥은 세상에서 내가 주었던 모든 복들을 다 빼앗겼을지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대한 순전한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않더냐? 세상에 욥만큼 흠이 없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라고 언급하심으로써 욥이 당한 이 엄청난 고난들이 전혀 까닭없이 사탄이 부추겨서 일어난 부당한 것이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서도 하나님에 대해 원망 한마디 내뱉지 아니하고 묵묵히 당신을 경배하는 욥이 말할 수 없이 고마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자 사탄은 또 다시 하나님께 욥을 참소합니다.

(욥 2:4)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족으로 가족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욥 2:5)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욱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욥이 재산과 자녀들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런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지만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으면 제 아무리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말 것이라고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으로 가족을 바꾼다’는 말은 동물 가족을 화폐를 대신하여 물물 교환의 주요 물품으로 사용하던 시대의 격언으로 등가, 즉 같은 가치를 가진 것끼리 서로 맞바꾸는 물물교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의미는 욥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욥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과 열 자녀는 하나님과 가치를 놓고 비교했을 때 등가가 성립되지 않지만 자신의 생명과 하나님은 등가가 성립된다고 생각할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탄이 제시한 두 번째 시험에 대한 제안도 받아주십니다.

(욥 2:6)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욥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욥 2:7)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하나님의 허락을 얻은 사탄은 곧바로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욥은 종기로 인해 몸이 너무 가려워 질그릇 조각을 주워 가지고 긁어야만 했습니다.

(욥 2:8)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마침내 욥에게 생명을 위협받는 재앙이 미친 것입니다.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 왔을 때에 욥의 모습은 종기로 인해 이미 처참하게 변해 있어서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욥 2:11) 그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욥 2:12)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겹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욥 2:13) 밤낮 칠 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뿐만 아니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 있었다는 사실로 보아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욥의 종기가 어떤 종류였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나병을 포함한 피부병은 다른 사람들에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격리시키어 놓았던 것이
당시 사회적인 풍습이자 관례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관례와 풍습에 비추어 볼 때 욥도 공동체와 격리되어 있었지 않았으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재 가운데 앉아 있었다는 것은 공동체로부터의 완전한 고립, 즉 '사회적인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자식들을 다 잃고 설상가상 피부병까지 걸려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있는 욥에게 세상에 단 하나 남아 있는 가족인 사랑하는 아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라 촌수도 셀 수 없어 무촌이라는 아내가 입을 엽니다.

(욥 2:9)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욱하고 죽으라

“재산도 자식들도 다 잃고 마침내 당신 자신까지도 죽게 된 마당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하나님이고 뭐고 욱이나 한바탕 퍼붓고 죽어라”

좀 심한 말이다 싶지만서도 열 명의 자식을 한 순간에 다 잃어버린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어머니가 그동안 피 땀흘려 일군 재산까지 다 잃어버리고 이제 의지할 곳이라고는 남편 밖에 없는 상황에서 남편마저도 이 지경이 되었으니 감정이 얼마나 극에 닿았으면 이러했겠나 생각이 들어 가슴이 아픕니다.

세상 모두가 욥의 아내를 못된 여자 취급하지만 저는 같은 여자로서, 아니 같은 인간으로서 솔직히 그에게 입 바른 소리를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욥의 아내와 저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있자니 이러다가는 여차하면 사탄의 뜻대로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욥을 참소했습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욱하지 않겠나이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비단 욥에 대한 참소만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모든 자에 대한 사탄의 참소입니다.

아내의 저주에 욥이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욥 2:10)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아내를 가리켜 어리석은 여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는 명언을 남깁니다.

욥은 세상의 길흉화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복을 주시고 거두시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천지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욥은 결코 말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사탄의 두 번째 시험도 의연하게 믿음으로 이기어 냈습니다.

반면 욥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사탄의 시험은 완전히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욥은 자신의 재산과 가족들을 잃어 버리는 재앙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재앙 앞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여 저버리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평생을 자식을 낳고 의지하며 함께 살아온 사랑하는 아내를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서 등을 보였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욥의 이같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이고 순전한 믿음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신앙이, 인간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갖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라는 물음을 던져 놓고 숨죽이고 지켜보는 사탄과 세상에 대한 욥의 승리이자 하나님의 완승이었으며 사탄의 완패였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세상 부를 주시고 사회적인 지위도 허락해 주시고, 건강도 챙겨 주시고, 자녀도 지켜 주시고.....그러니까요?

아니면 별을 받을까봐 두려워서요?

“저것들이 저렇게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는 것은 다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지. 세상에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지.”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끝까지 걸고 넘어지면서 하나님께 참소하는 이슈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전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까닭없이 아무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경배할 수 있는가?

가족들과 재산을 잃어 버리고 마침내 생명까지 잃어 버린다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세상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 볼 수 있는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나는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러워 하고 극찬하신 것은 욥이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순전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러워 하시고 극찬하신 것은 욥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등을 보였을
때에도 개의치 않고 흔들림없이 하나님만을 바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이 여러분 평생에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있어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